

# 괴물의 '폼격'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23일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스코어 보드

3월 23일(한국시간)-2014 정규시즌 첫 등판 경기 (호주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득점	안타	실책
LA 다저스	1	0	2	0	2	1	1	0	0	7	13	1
애리조나	0	0	0	0	0	0	0	1	4	5	8	3

### ■투구내용

	1회	2회	3회	4회	5회
① 폴락	X 뜬공	⑤ 몬테로	X 직선타	⑨ 케이힐	K 삼진
② 힐	X 뜬공	⑥ 트롬보	X 뜬공	① 폴락	X 뜬공
③ 골드슈미트	① 안타	⑦ 파라	② 안타	② 힐	X 뜬공
④ 프라도	K 삼진	⑧ 그레고리우스	K 삼진	③ 골드슈미트	E 실책
				④ 프라도	K 삼진
				⑤ 몬테로	FC 야수 선택
				⑥ 트롬보	X 뜬공
				⑦ 파라	K 삼진
				⑩ 그레고리우스	X 뜬공
				⑨ 콜먼터	B 볼넷
				① 폴락	XX 병살타

## 류현진, 5이닝 무실점...LA 7-5 승리 이끌어

### 첫 안타·첫 득점 신고 타자로도 만점 활약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2014년 정규시즌 첫 등판에서 투·타에 걸쳐 맹활약하며 승리를 맞았다.

류현진은 23일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메이저리그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5이닝을 2안타와 볼넷 하나만 내주고 삼진 다섯 개를 곁들여 무실점으로 막았다.

다저스가 6-0으로 앞선 6회말 크리스 위스로와 교체된 류현진은 팀이 7-5로 이기면서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다.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나가 득점을 올리는 등 타자로서도 만점 성적을 냈다.

지난 시즌 애리조나와 5차례 싸워 1승 2패, 평균자책점 4.65로 다소 부진했던 류현진은 새 시즌 첫

대결은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이날 던진 87개의 공 중 55개가 스트라이크였다. 최고 구속은 시속 92마일(약 148km). 구석구석을 찌르는 제구와 다양한 구종으로 상대 타선을 요리했다.

1-0으로 앞선 1회말 류현진은 2사에서 폴 골드슈미트에게 우익수 안타를 얻어맞고 첫 출루를 허용했다. 하지만 다음 타자 마르틴 프라도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회를 넘겼다.

2회에도 2사 후 헤라르도 파라에게 중전안타를 내줬지만 디디 그레고리우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3회초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타격 솜씨도 뽐냈다.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야시엘 푸이그의 좌전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3회 말을 삼자범퇴로 끝낸 류현진은 4회말 어설픈 수비에 곤경에 빠졌지만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2루수 고든의 실수로 첫 타자 골드슈미트가 출루했다. 투킹 삼진으로 프라도를 속아낸 뒤 미겔 몬테로에게 내야땅볼 타구를 유도해 병살로 이닝을 마무리 할 기회를 만들었지만, 유격수 헨리 라미레스가 직접 2루 베이스를 찍으려다가 주자 두 명을 모두 살려줬다.

류현진은 당황하지 않고 트림보를 우익수 파울 플라어로 잡았다. 또 바깥쪽에 딱 찬 122km짜리 슬라이더로 파라를 투킹 삼진으로 잡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백스터의 내야 땅볼, 우리베의 2루타로 5-0까지 점수가 벌어진 5회, 류현진은 1사 후 볼넷을 내줬지만 플록을 유격수 앞 병살타로 처리하며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개막시리즈에서 승리투수가 된 류현진은 "스타트를 잘 끊어 좋다. 제구가 나쁘지 않았고 선수들이 점수를 뽑아줘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더 적은 투구수로 더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제로맨, 만점투

### 양현중, LG전 5.1이닝 무실점...KIA 1-2 역전패



KIA 좌완 양현중의 에이스 리허설이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시범경기 최종전을 치렀다. 1-2 역전패로 끝났지만 성공적인 리허설 무대였다. 타선의 신·구 조화 속에 양현중의 시즌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 됐다.

시범경기 세 번째 등판에 나선 양현중은 이날 5.1이닝을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앞선 두 경기 포함 14.1이닝 무실점 행진이다. 무엇보다 전체 볼넷 개수가 단 2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양현중의 시범경기는 100점 만점이다.

마지막 등판에서 남겨진 숙제였던 '투구수 관리'를 성공적으로 풀었다. 1회 첫 타자 박용택과의 승부에서부터 양현중의 독기가 뽐어져 나왔다. 3개의 공을 모두 스트라이크에 꽂아 넣으며 삼구 삼진을 잡는 등 초구부터 과감한 승부를 하며 타자들을 제압했다. 4회에는 단 3개의 공만 필요했다. 이병규를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양현중은 문선재·최경철을 각각 중견수·우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잡아내며 이닝을 끝냈다. 모두 초구에 승부가 끝났다.

5회까지 투구수는 46개, 양현중은 6회 1사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예정된 강판은 아니었다. 선두타자 손주인의 타구를 잡기 위해 점프를 했던 양현중이 임재철을 상대하다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서재응과 교체됐다. 수비 도중 근육이 놀라면서 부상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강판이었다. 중도에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양현중은 그립 같은 53개의 공을 던지며 화려한 2014시즌을 예고했다.

한편 KIA는 이번 시범경기에서 6승1무5패로 가장 많은 승을 기록했지만 승률(0.545)에서 밀리며 두산(4승2무5패·0.667), LG(5승1무4패·0.556), NC(5승2무4패·0.556)에 이어 4위에 위치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INCE 1989

#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